

## 꽃의 형태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난(Orchid) 모티프를 중심으로 -

박 현 주 · 양 취 경\*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강사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The Study of Costume Design Applying the Shape Beauty of Flower** - Concentrating on the Orchid Motif -

Hyun-Joo Park · Chieu-Kyung Yang\*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Chosu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2. 1. 15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pursuing the unique plastic arts with the orchid motif which has the graceful colors and a variety of shapes beauty. Another aspect of this study intends to create the modern costume design with the high added value by expressing the texture according to the material and tissue development for the continual improvement and promotion of the modern costume design in the handicraft art area.

The results through the theoretical survey and the work produ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orchid which has the various shapes and colors provides the designers with the unique plastic arts and the possibilities for the unlimited expressions as the design motives.

Second, we can see the creation of cubic plastic beauty in the moving line, as the material which has the flexible and brilliant shape fixation, used for expressing the shape beauty of the orchid.

Third, this study reveals the extension of expression areas as a characteristic of the plastic arts by applying handicraft techniques such as dyeing, corded tuck, flounce, crochet, weaving, beads embroidery, and art flower to the costumes for developing the unique material and texture.

Finally, the possibility is suggested that the desires of the moderns searching for their own individualities can be met by creating the costumes with the added value as the exposure of esthetic consciousness through the handicraft expression techniques.

Key Words : orchid(난), handicraft(수공예), plastic arts(조형예술)

## I. 서론

오늘날 복식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대량생산과 신속해진 정보교류로 인해 기계 종속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예술성, 독창성, 고부가가치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대량생산과 복제품에 지친 현대인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제안과 발전을 바라면서 인간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이고 수공예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되었다. 또한 복식에서도 이에 영향을 받아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 차별화가 요구되는 이 시대에 모든 창조적인 요소들과 함께 복제되지 않은 자연미의 표현과 수공예적인 디자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창의적이고 시대적 감성에 부응하는 고도의 디자인 감각과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복식소재의 개발과 표현기법의 개발을 통해 실용성과 예술적 가치를 겸비한 고부가가치의 현대 복식디자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인간은 좀 더 밝고 인간 중심적인 본연의 순수함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의식주 전반에 걸친 자연주의(Naturalism) 경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형태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예술창작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모든 창조적인 영역에서의 근원적 모티프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류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모체인 자연 속에서 우아한 색채와 다양한 형태미를 갖춘 난(Orchid)을 모티프로 하여 자연미에서 볼 수 있는 끊임없는 변화와 생명력을 표현함과 동시에 비례, 율동, 균형, 대비, 강조 등 일정한 질서와 조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모티프의 이미지에 맞는 소재와 기법을 개발하여 적절하게 도입함으로써 서정적이며 우아한 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예술적 조형감각을 지닌 다양한 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조형활동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소재인 자연과 자연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감성이나 조형의지에

의해 창의적으로 표현된 조형예술과의 관계를 살피고, 자연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통해 인간의 조형활동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자연의 이미지를 응용한 현대의상디자인 작품을 수집하여 정리·분석하였다. 또한 작품의 모티프인 난의 종류와 특성 및 형태를 문헌과 사진자료,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연구하였으며 난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조형성을 응용하여 의상에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난의 다양하고 풍부한 색감과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모티프 이미지에 맞는 소재 개발을 통하여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소재표현 방법으로는 난의 우아한 색감을 나타내기 위해 보색대비 조화, 유사색 조화를 색채 그라데이션 효과로써 염색하였다. 난의 다양한 형태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형태고정이 자유로운 동선과 고급스러운 이미지 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인견사를 혼합한 니팅(Knitting)기법, 직조(Weaving)기법을 사용하였고, 신축성 있는 벨벳에 튜브를 넣고 재봉하는 코디드 터크(Corded tuck)기법 등을 사용하여 볼륨감과 표면의 재질감, 조형적인 형태를 한층 더 부각 시켰다. 또한 난의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플라운스(Flounce)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비즈 자수, 아트 플라워 등의 장식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난이 가지는 화려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실물 작품은 총 4점으로, 원피스 드레스와 코트 2점, 원피스 드레스 2점으로 구성하였으며, 난의 형태를 재구성하여 복식디자인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표현기법의 영역을 확대시켜 독창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되도록 제작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연과 조형

자연이란 「볼 수 있는 현상의 세계」<sup>1)</sup>이며 모든 예술의 근원이다. 자연은 예로부터 인간의 관심대

상이자 생활의 터전이었으며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장엄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늘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유발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의 형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 이룩된 것이며, 그러한 형태는 인간의 의지에 관계없이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자연계의 변화나 운동은 대립하는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일정불변의 형태에 머무는 일이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sup>2)</sup> 따라서 우리는 자연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형태와 질서 속에서 조화된 미를 이루고 있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은 자연의 정의에서 보듯이 그 자체가 자연이며 또한 자연공간내의 한 부분인 것이다.<sup>3)</sup> 인간의 본래 터전이 곧 자연이고 그러기에 인간의 생은 그 영향을 받으며 미의식과 예술활동 또한 자연환경 속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sup>4)</sup> 이러한 자연 속에서 인간은 미의식을 가지고 디자인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조형의지를 촉구하게 되었다. 조형이란, 여러 가지를 사용하여 어느 관념에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며, 어떤 물질을 빌려 이것에 필요한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조형미는 자연미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감성이나 조형의지에 의해 창의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말하며, 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개성이 표현된다. 콜링우드는 조형을 인간 최초의 기본적인 정신활동이라 했고<sup>5)</sup> 루이스 면포스는 「인간은 창조하는 것을 멈출 때 사는 것을 멈춘다」<sup>6)</sup>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원초적 활동으로서의 조형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형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생의 표현이며<sup>7)</sup> 자신에 대한 고유의식이고 자기인식이며 자아실현의 한 부분을 이룬다.<sup>8)</sup> 즉 자연과 인간, 그리고 조형의 관계에서 인간은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며, 자연의 본질과 자신의 내면세계를 결합해서 표현한다. 그 내면세계의 표현은 조형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조형미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난 자연의 재결정체라 말할 수 있다.

### 1) 자연과 조형예술

자연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갖고 끊임없이 자연

을 관찰하면서 미를 표현해온 예술가들은 그 관찰을 통한 감동을 자기만의 독창적인 표현에 의해 예술로 승화시켜왔다. 그들은 자연에 대한 정밀한 관찰로 지금까지 묘사된 적 없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특징을 발견하여 독창적인 양식으로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가하게 되었다.<sup>9)</sup> 오늘날 자연은 자연현상 그 자체로 복사되고 재현되는 수준, 다시 말해서 모방의 단계가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과 정신에 의해서 형태가 생략되거나 강조되고 해체되거나 응집되면서 화면에 구성되는 표현으로서의 새로운 대상이 되는 것이다.<sup>10)</sup>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동양의 자연관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인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형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자연의 세계에서도 인간 스스로 느낀 이미지와 감정을 내면화시킨 후, 그것을 다시 밖으로 표출하는 방법으로 예술세계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예술 또는 조형이란 표현이 대두된 것은 19세기경이다. 이 당시는 조형예술을 “자연대상을 모방하는 예술”이란 뜻으로 해석 사용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연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보다는 조형의 독자성이 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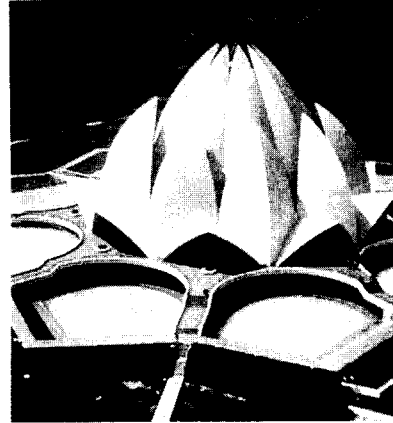
또한 자연을 본다는 것, 느낀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계기가 되며<sup>11)</sup> 자연의 피상적 모방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특질을 찾아내어 이미지로 형상화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대상을 그대로 묘사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진정한 감정과 의미를 찾아내고 미를 재창조할 수 있는 표현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특징적인 구조를 발견하여 대상물을 어떠한 단순한 형태로 집약시킬 것인가를 고찰하여 형태를, 재형성하고 대상물의 형태를 새로운 질서로 다시 창조하는 것이 바로 조형예술인 것이다.<sup>12)</sup> 이와 같이 자연은 예술가에게 표현의 동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간의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형예술은 건축·회화·조각·공예·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작활동의 소재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림 1>은 로터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건

축에 결합시킴과 동시에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환경조형물로서 건축의 조형미를 극대화시키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환경예술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미적 형식으로서의 자연의 형태는 건축이나 회화에서 많이 응용되었으며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 <그림 2>는 자연적 요소가 회화에 쓰인 예로써, 아르누보(Art-Nouveau) 시대에는 생명력 넘치는 동·식물의 유동적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영국의 비어즐리(Aubrey Beardsley)는 자연의 아름다운 곡선적 형태를 복잡하고 장식적인 무늬로 형상화하여 판화나 책의 삽화에 그려 넣었다. <그림 3>은 식물을 모티프로 한 가구디자인으로써 곡선의 자유로움과 소파의 편안함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꽃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입체적인 볼륨감은 안락한 느낌을 준다. 한편 자연의 형태는 여러 가지의 재료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연이 직접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각종 장신구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소재로써 사용되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은 오랜시간 동안 디자인의 모티프로 사용되어 왔으며,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전체적인 조화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조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턴을 창출하고 인간에게 조형예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연의 범칙성을 관찰함으로써 조형사고의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 자연의 이미지를 모티프로 한 의상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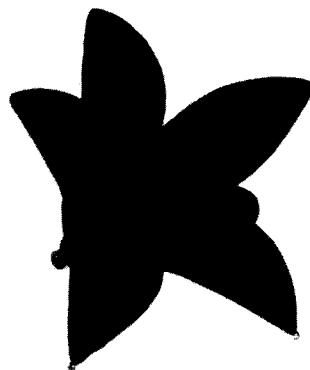
많은 예술가들은 자연의미를 찬양하고 동경하여 작가의 주관에 의해 재현과 변형을 통한 새로운 예술미를 창조해 왔으며, 디자이너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미의식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모티프로 인정받게 되었다. 복식에 있어서는 근대복식에서 현대복식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던 아르누보 시대부터 자연의 이미지를 모티프로 한 다양한 창작활동의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디자인은 자연의 모티프를 의복에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으



<그림 1> Bahai house of worship  
(출처: Special Buildings)



<그림 2> Aubrey Beardsley,  
Peacock Skirt, 1907  
(출처: 디자인의 발견)



<그림 3> Getsuen Easy Chair  
(출처: Velvet)

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과장, 생략, 단순화의 과정을 통한 추상적 디자인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4>는 옷 전체를 한 송이의 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꽃을 의상 전체적인 실루엣에 응용하여 입체적이면서 초현실주의적인 디자인을 표현한 티에리뮤글리(Thierry Mugler) 작품이다. 그는 꽃, 나비, 곤충 등 자연을 모티프로 한 많은 디자인들을 Haute Couture Collection에 선보였으며, <그림 5>는 진경옥의 작품으로 자연의 이미지를 염색기법과 조형적인 형태를 이용한 예술의상(Art to wear)이다. 또한 오늘날 자연을 모티프로 한 의상 디자인의 개념은 단순한 의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토털 코디네이션화 되어 신발, 모자, 가방, 가발, 머리장식 등의 액세서리 <그림 6>에서 언더웨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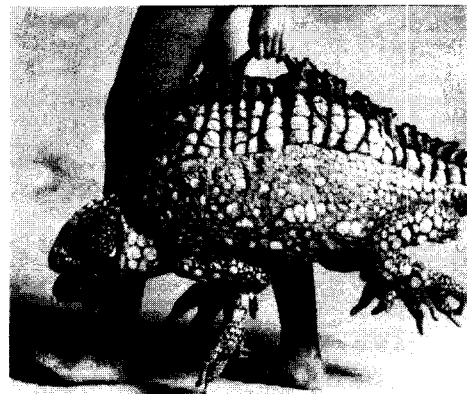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자연은 거의 모든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상디자인에 이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소재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Thierry Mugler의 작품  
(출처: Fashion & Surrealism)



<그림 5> 진경옥의 작품  
(출처: Kwangju Biennale, 1997)



<그림 6> Chameleon Suitcase  
(출처: Art to wear)

## 2. 난의 특성과 디자인

### 1) 난의 종류와 조형적 특징

난과 식물은 외떡잎식물 즉, 단자엽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난은 종류마다

꽃과 잎, 줄기의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특징이 서로 다르다. 세계 곳곳에 분포해 있는 난과 식물은 원예학적으로 꽃의 은은한 향의 감상과 더불어 사계절 푸른 잎을 감상할 수 있는 동양란과, 다양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지닌 서양란, 순수하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주는 야생란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교배종이 생성되어 각각을 구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에서는 이 모두를 난(orchid)이라 부르고 있다. 이에 난의 분포, 생태, 형태, 종류 등을 고찰하여 조형원리로서의 미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 (1) 난의 분포

각종 난초들은 남극과 북극 등 극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분포되어 자라고 있지만 원예적인 측면에서 관상가치가 높고 중요한 종류들은 주로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즉 북위 30°와 남위 30°사이의 연간 강우량이 1,500~2,000mm 정도 되는 열대 및 아열대의 삼림지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분포밀도는 열대에서 아열대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위도가 남북으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종류가 적어진다. 대개의 난은 고온·다습한 조건을 좋아하며 분포를 넓히고 있다.<sup>13)</sup>

#### (2) 난의 생태

난은 환경에 순응하여 갖가지 장소에서 생육하고 있는데 나무나 바위 위에서 생활하는 착생란(着生蘭)과 땅 속에 뿌리를 펴고 생활하는 지생란(地生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착생란은 열대에서 아열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굵은 뿌리를 공기에 노출하고 있어 비나 공기중의 습기에서 수분을 취하고 있다. 줄기는 두꺼우며 건조에 잘 견디는 것이 특징이다.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는 지생란은 수분이나 온도, 양분 등의 변화가 적으며 보다 안정된 조건에서 생육한다. 착생란에 비해 뿌리는 가늘고 잎은 얇아도 폭이 넓은 것이 많이 보인다.<sup>14)</sup> 생육환경도 다양해서 해발 0m인 해안에서부터 3000m 가까운 높은 산악지대에 이르기까지 분포하고 사막, 고원, 늪지대, 바위나 나무 위 등에서 자라고 있다.<sup>15)</sup>

#### (3) 난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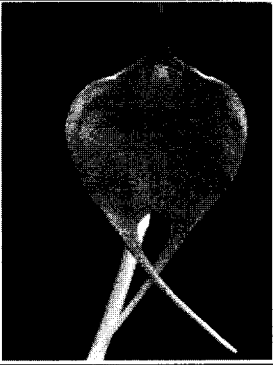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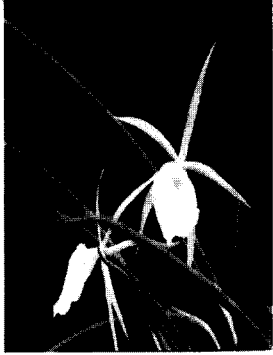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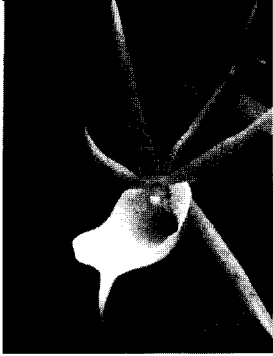

난의 형태는 크게 꽃, 벌브(bulb), 잎, 시이드(sheath), 뿌리(root)로 나뉜다. 꽃은 3개의 꽃잎 중 1잎이 특수한 모양으로 변화하여 순판이라 불리며 난 꽃의 특징으로 되어있다. 수술과 암술이 합체하여 예주(蕊柱)가 되어 있는 것은 난과(蘭科) 최대 특징으로 다른 식물과 구별되는 점이다.<sup>16)</sup> 벌브는 양분이나 수분을 비축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비대한 줄기를 말하며 잎은 두께, 넓이, 모양 등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잎이 두터운 것은 수분의 증발이 적고 건조에도 강하다. 칼집처럼 꽃봉오리를 싸고 있는 것을 시이드라 하고 뿌리는 밑동에서 끝단까지 같은 굵기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sup>17)</sup> 생육의 형태에서 카틀레야나 덴드로비움, 심비디움 등과 같이 매년 새로운 줄기가 연달아 발생하는 북경성의 것과 반다나 팔레놉시스와 같이 줄기는 1개뿐으로 경정에 새 잎을 차례로 내밀어 위로 계속 뻗는 단경성의 것으로 구분된다.<sup>18)</sup>

#### (4) 난의 종류

난과 식물의 종류는 매우 많다. 식물 중에서도 가장 큰 집단으로 약 660속, 25,000~30,000여종이나 되는 외떡잎식물 중에서 최대의 무리로 알려져 있으며, 난과 식물의 종 수는 지구상의 꽃피는 식물종류의 약 7%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또 인공교배에 의한 개량품종도 약 6만종에 이르고 있어 대략 8대속으로 카틀레야(Cattleya), 심비디움(Cymbidium), 덴드로비움(Dendrobium), 팔레놉시스(Phalaenopsis), 파피오펜딜룸(Paphiopedilum), 반다(Vanda), 온시디움(Oncidium), 에피덴드럼(Epidendrum)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sup>19)</sup>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종류의 난들과 그 밖의 조형적 형태가 독특한 것들 중에서 4종을 골라 조형작업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난은 <표 1>과 같다.

<표 2> 작품의 모티프로 사용된 난의 종류와 형태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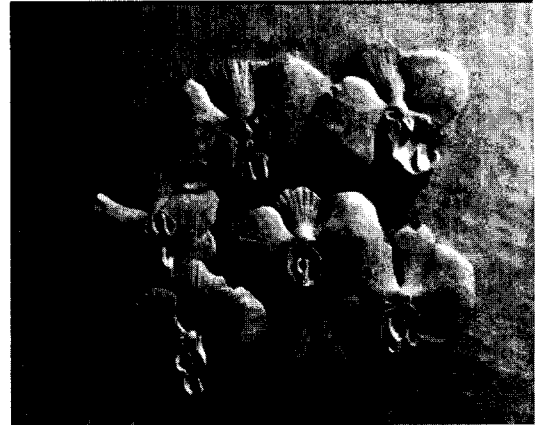
번호	작품에 사용된 난의 종류		특징	형태
	난의 종류(속)	난의 이름		
I	마스데발리아 (Masdevallia)	토바렌시스	나팔모양으로 크게 피는 것은 꽃받침 조각이다. 꽃잎과 입술꽃부리는 꽃 중심부에 있는데, 거의 퇴화하고 있으나 면과 선의 배합이 아름다운 꽃이다.	
II	브라사볼라 (Brassavola)	프로그란스 (Pragrance)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 걸쳐 분포하고 10~15cm 가량 피는 중형의 착생란이다. 꽃은 백색으로 다육질의 잎과 큰 꽃술이 특징이다.	
III	앵그레컴 (Angraccum)	인판디브라에 (Infundiblare)	꽃잎이 밀랍질로 되어있어 두껍고 뾰족한 형태가 특징이다. 꽃의 지름 : 7~8cm 초장 : 보통 30~50cm 개화기 : 여름 원산 : 열대 서아프리카	
IV	카틀레아 (Cattleya)	도위아나 (Dowiana)	꽃은 모두 2장의 꽃잎과 3장의 꽃받침, 거기에 꽃잎이 변화된 lip을 합해서 6장으로 되어있다. 특히 립은 크게 발달해서 frill이 들어있고 색채 적으로도 변화가 다양하다.	

2) 난의 형태를 모티프로 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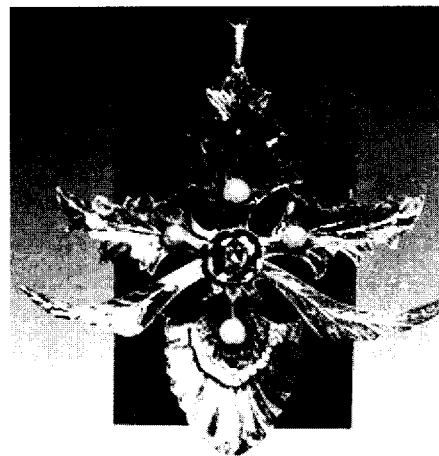
디자이너들은 자연을 모티프로 하여 수많은 창작활동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다양한 색과 형태로써 창조될 수 있는 모티프로 꽃을 애용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디자이너들은 좀 더 색다른 모티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장식적인 요소로서 사용 되어 오던 난은 꽃 모티프와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통하여 새로운 예술미를 창조할 수 있는 모티프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난은 다양한 형태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종류라도 그 색과 형태가 나뉘는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모든 난의 개체 하나 하나가 각기 다른 형태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변화와 생명력을 지닌 난은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모티프를 제공한다. 또한 난은 다른 식물과 달라서 잎의 개성이 꽃의 형태와 색채·포기 자체의 조화, 꽃의 높은 향기 등의 매력에 이끌려 정신적인 수양도 쌓을 수 있는 정서적인 식물이며, 예로부터 고귀하고도 자태가 아름다운 꽃으로 여겨 그림이나 자수의 대상으로 많이 이용되어져왔다.<sup>20)</sup> 기품과 호화로움이 넘치는 난은 소묘, 수채화, 유화, 수묵화, 판화 등과 같이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평면에 표현하는 회화에서부터 공간 속에 입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조소, 실생활에 이용하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그림 7>은 난을 모티프로 한 목공예품으로서 회화처럼 한 방향에서 보는 것이지만 입체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저부조 작품이다. 난은 그 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버리핀, 펜던트 <그림 8>, 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신구의 모티프로도 애용되어졌으며, 부케나 코스주, 직물에 사용되는 문양으로도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또한 예술의상의 모티프로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에게도 애용되었는데, 필립 트레이시(Philip Treacy)는 난을 모티프로 조형적인 모자를 디자인하여 오프퍼퓸 컬렉션에 선보인 디자이너이며, 수많은 그의 작품 중 <그림



<그림 7> Jon Berg  
(출처: The Guild)



<그림 8> Orchid Pendant  
(출처: The paris salons jewelry)

9>는 다른 양란에서 볼 수 없는 아치가 있는 꽃의 형태와 독특한 색깔을 가진 파피오펜디움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또한 <그림 10>은 광미지의 작품으로, 검정색 벨벳 원피스에 난을 이용한 코스주를 사용함으로써 장식적인 미를 강조한 작품이다. 코스주에 사용된 재료는 죽은 난을 뿌리째 사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였고 그 위에 리본자수기법을 사용하여 입체적인 꽃을 표현함으로써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한 작품이다.

이와 같이 예술가들은 난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그림9> Philip Treacy의 작품  
(출처: Book Moda, No.47)



<그림10> 콰미지의 작품  
(출처: 콰미지 展, 1998)

무한한 창작 아이디어를 얻어 이상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난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요소가 기능적·구조적 측면에서 의상과 결합되었을 때 자연의미를 보다 더 승화시켜 성숙된 디자인으로 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독창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작가는 주관적인 조형의

식을 갖고 재창조해야 할 것이다.

### III. 작품제작

####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인간은 문명을 만드나 그로 인하여 죽어가고, 우주 공간을 정복하나 자기공간을 잃고, 생활여건은 편리해지나 주거 환경은 오염되고, 푸른 산야는 시멘트 숲으로 변하여감에 따라 문명의 이기와 강박감에 시달려 인간의 자연에 대한 향수와 동경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자연은 우리에게 마음의 고향이고, 난(Orchid)은 자연의 산천초목을 한 그릇에 옮겨놓은 소자연인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난의 형태 속에서 예술가들은 무한한 창작 아이디어를 얻어 이상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의상에 있어서 난의 조형적 요소를 접목시킨 예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인류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보체인 자연 속에서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형태를 갖춘 난을 모티프로 선택하여 그것의 조형성을 의상디자인에 표현하였다. 다양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가진 난 중에서도 조형미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모티프를 선택하고 은유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의상에 접목 시켰다. 이러한 조형예술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이에 따른 실물작품은 총4점이며 원피스드레스 2점, 원피스드레스와 코트 2점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난의 조형성을 표현하기 위해 입체적이고 약간의 과장된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난의 형태를 전체적 이미지로 응용하거나 재조합과 변형을 통해 부분적으로 응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실제 난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축소, 확대, 삭제, 첨가, 과장 등의 방법을 작품에 응용하였다.

작품제작에 사용된 색상은 화려한 옐로우(Yellow), 바이올렛(Violet)을 이용한 보색대비의

조화와 자연의 푸르름을 상징하는 그린(Green), 흙을 상징하는 브라운(Brown)을 사용한 유사색의 조화를 통한 색채그라데이션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의 순수한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작품의 소재로는 실크, 벨벳, 인견사, 면사, 오간자, 깃털, 비즈 등을 사용하였으며 조형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동선을 이용하였다. 또한 작품에 사용된 기법으로는 크로셰 기법, 직조기법, 염색기법, 코디드터크 기법 등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조형 형태구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비즈자수, 아트플라워 등의 장식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한 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에 사용된 모티프, 구성, 소재, 색상, 기법, 특징의 비교 분석은 <표 2>와 같다. 이처럼 난의 형태에서 나타난 조형성을 의상에 응용,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실용성과 독창성을 지향하는 현대인의 속성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현대 미술의 상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 2. 작품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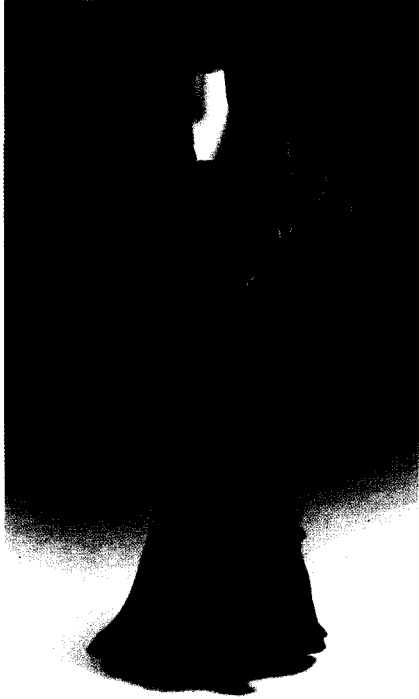
작품1은 면과 선의 배합이 아름다운 꽃잎의 형태를 칼라(collar)부분에 적용시킨 디자인으로 동선과 내추럴한 칼라로 염색한 면사를 함께 크로셰하여 자연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조형예술 의상으로 표현하였다. 동선은 다른 금속사 보다 부드러운 면서 형태고정성이 뛰어나 크로셰한 후 자유로운 형태변형이 용이한 소재이다. 이러한 동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조형적인 형태의 의상으로 형상화 시켰다. 코트의 조형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피스 드레스는 머메이드 실루엣을 기본으로 심플하게 표현하였으며 자연의 순수한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유사색의 조화를 이용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 염색하였다. 또한 코트의 여밈을 위하여 아트플라워 기법을 이용한 코사쥬로 화려한 난의 이미지를 부각 시켰다.

작품2는 날카롭게 뾰은 꽃잎과 커다란 꽃이 특

<표 3> 작품 분석

번호	모티프	구성	소재	색상	기법	특징
I	토바렌 시스 (마스탈발리아속)	투피스 드레스 (코트+원피스 드레스)	실크, 면사, 인견사, 동선, 비즈,	Yellow Green, Olive Green, Kahki Brown	크로셰기법, 염색 기법, 비즈 자수, 아트플라워 기법	다른 금속사 보다 부드러운 면서도 형태 고정성이 뛰어난 동선과 내추럴한 칼라로 염색한 면사를 조화시켜 크로셰 함으로써 자연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조형 예술의상으로 표현하였다.
II	프로그 란스 (브라사 볼라속)	원피스 드레스	벨벳, 인견사, 오간자, 깃털, 동선, 비즈	Brown	직조 기법, 크로셰기법, 아트플라워 기법	날카롭게 뾰은 꽃잎과 커다란 꽃이 특징인 프로그란스의 형태를 직조기법을 통하여 소매부분에 연결함으로써 공간감과 율동감을 표현하였다.
III	인판디 브라에 (앵그레퀴속)	투피스 드레스 (코트+원피스 드레스)	벨벳, 튜브, 에나멜 동선, 비즈	Dark Brown	코디드 터크 기법, 크로셰기법, 비즈 자수, 아트플라워기법	칼라의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신축성이 뛰어난 긴 튜브를 넣고 재봉하는 코디드 터크(Corded Tuck)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볼륨감과 표면의 재질감을 부각 시켰다.
IV	도위아나 (카틀레아속)	원피스 드레스	실크 노방	Yellow, Violet	플 라 운 스 (Flounce) 기법, 염색 기법	화려한 꽃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 보색 조화의 기법을 사용하여 염색하였으며 꽃의 형태를 버슬 스타일로 표현하여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작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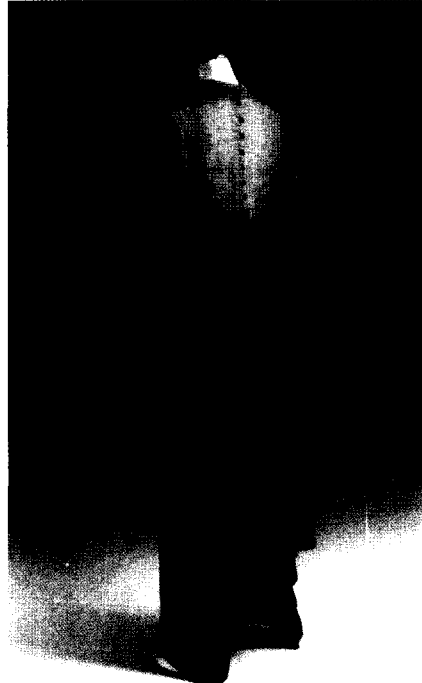
<작품3>



<작품2>



<작품4>



징인 프라그란스의 형태를 모티프로 하여 형태적 공간감과 울동감을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난의 형태를 형상화시키기 위해 머메이드 실루엣을 기본으로 윈 쇼울더 드레스에 난 꽃의 형태를 직조기법을 통하여 소매부분에 연결함으로써 조형미를 강조 시켰다. 직조기법은 경사에 동선, 위사에는 인견사를 사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입체적인 형태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꽃과 꽃잎의 차별화를 위하여 꽃은 직조기법, 꽃잎은 크로쉐하다 기법을 사용하였고 전체적인 통일감과 울동감을 주기 위해 아트플라워 기법으로 원피스 드레스의 어깨부분에서 흘러내리는 듯하게 장식하였으며 직조에 사용한 인견사로 전체 라인을 따라 버튼홀스티치 하였다. 원피스 드레스에 꽃잎모양으로 컷팅하고, 컷팅한 부분에 오간자를 대고 재봉하여 투시효과를 주었다.

작품3은 두껍고 뾰족한 꽃잎의 형태가 특징인 인판디브라에의 형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신축성이 뛰어난 벨벳 사이에 긴 튜브를 넣고 재봉하는 코디드 터크(Corded tuck)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볼륨감과 표면의 재질감을 한층 더 부각 시켰다. 소매에는 부분적으로 동선에 비즈를 넣어 크로쉐한 패브릭을 연결하여 동선 사이로 살이 비치는 시드루(seethrough)효과를 주어 자칫 단색의 사용으로 지루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탈피하였다. 꽃을 형상화한 칼라(collar)와 단 부분에 코디드 터크기법의 사용으로 인해 입체적으로 들어간 스티치라인을 따라 비즈자수로 장식하였으며, 아트플라워 기법으로 장식적인 미를 강조하였다.

작품4는 양란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매력적인 카틀레야속의 도위아나는 림(lip)이 발달해서 프릴(frill)이 들어있고 색채 적으로 변화가 다양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화려한 꽃의 색에 생동감과 리듬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염색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옐로우(yellow)계열과 바이올렛(violet)계열의 보색을 사용하여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H라인 실루엣에 버슬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는데 조형적인 꽃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힘있는 실크노방을 겹으로 사용하였고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프릴에서 나타나는 유기적인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플라운스(Flounce)기법을 사용하여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 IV. 결 론

21세기는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의 향유를 통해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문명화된 사회를 맞이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자연의 황폐를 얻게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더 이상 지구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대량생산과 복제품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안과 발전을 요구하게되었으며, 복식에 있어서도 독창적이고 예술성이 높은 수공예적인 디자인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되었다.

이처럼 자연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이 시점에 '자연으로의 회귀'만이 인간과 지구 전체의 진정한 화두(話頭)라고 생각하였으며, 태초의 신비로움과 기쁨을 지닌 난은 단자엽(單子葉) 식물 중 가장 진화된 식물이며 그 끊임없는 변화와 생명력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던 본 연구자에게 새로운 창작욕구를 자극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아한 색채와 다양한 형태미를 갖춘 난(Orchid)을 모티프로 하여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추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수공예적인 현대의상디자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증진을 위해 소재와 조직 개발에 따른 질감을 표현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현대의상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고찰과 작품제작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을 모티프로 한 조형활동은 접근방식과 선택된 재료와 기법에 따라 미적 가치가 뛰어난 조형 작품이 창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다양한 형태와 색채를 지니고 있는 난은 디자이너에게 독창적인 조형예술의 세계를 제시하고, 디자인 모티프로써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둘째, 난의 곡선적 형태미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수공예적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동선의 사용은 유연하면서도 형태고정이 뛰어난 소재로써 입체적 조형미를 창출하였다.

셋째, 독특한 소재와 질감을 개발하기 위해 염색

(Dyeing), 코디드 터크(Corded tuck), 플라운스(Flounce), 크로셰(Crochet), 직조(Weaving), 비즈 자수(Beads embroidery), 아트플라워(Art flower) 등의 수공예적인 기법을 복식에 응용함으로써 조형예술의 성격으로 그 표현영역이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작품의 모티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소재를 선택하는데 있어 각각의 소재가 지닌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다양한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수공예적인 표현기법을 통한 미의식의 표출로 고부가가치 추구의 의상을 창조하여,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미적 욕구충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난의 다양하고 풍부한 색감과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모티프 이미지에 맞는 소재 개발을 통하여 소재영역의 확대와 현대 복식의 창조적인 표현 가능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 복식 디자인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로서의 난은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지닌 조형 소재이므로 형태, 색채, 문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로 수공예적인 기법과 조형적인 형태를 접목시킨 예술 의상이 실용성과 예술적 가치를 겸비한 한 단계 발전된 예술 의상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H.리이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역, 을유문화사, 1968, p.226.
- 2) 한석우, <인체조형>, 미진사, 1991, p.15.
- 3) 파울클레, <현대미술을 찾아서>, 열화당, 1979, p.15.
- 4)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p.3.
- 5) 조요한, <예술철학>, 경문사, 1993, p.23.
- 6) B. 무나리, <예술로서의 디자인>, 김윤수 역, 일지사, 1976, p.212.
- 7) 김임수, <현대미술의 상황>, 홍익미술, 제4호, 홍익대학교출판부, 1975, p.85.
- 8) L.범포드, <예술과 기술>, 김분환 역, 을유문고, 1975, p.33.
- 9) H.리이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을유문화사, 1969, p.228.
- 10) 조요한, <예술철학>, 경문사, 1981, p.28.
- 11) 정시화, <현대디자인연구>, 미진사, 1981, p.27.
- 12) 미학연구회, <미학>, 문영사, 1983, p.147.
- 13) 카라사와고우지, <서양란백과>, 전원문화사, 1994, p.148.
- 14) 카라사와고우지, <서양란백과>, 전원문화사, 1994, p.148.
- 15) 편집부 저, <서양란>, 홍신문화사, 1994, p.148.
- 16) 카라사와고우지, <서양란백과>, 전원문화사, 1994, p.146.
- 17) 편집부 편, <서양란>, 홍신문화사, 1995, p.38.
- 18) 카라사와고우지, <서양란백과>, 전원문화사, 1994, p.146.
- 19) 편집부 편, <서양란>, 홍신문화사, 1995, p.36.
- 20) 정한원, <자연과 蘭>, 오성출판사, 1999, p.3.